

중·소·대기업 코로나 방역 실태

# 기업들 지침 따라 수동적 방역, 발병 직원 관리·예방 '구멍'

중앙SUNDAY와 서울대 의대는 지난해부터 기업들이 직원과 소비자 건강관리에 공헌하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경영기획팀을 구성하고 함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엔 기획팀과 전문가들이 함께 '건강100세회'를 만들기도 했다. 건강경영 기획팀과 건강100세회의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기업들의 감염병방역상황을 긴급 조사했다. 이번 기획에는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호흡기내과·방역전공 등 6명의 교수와 한국건강학회 이사 10명이 참여해 기업 방역 점검리스트를 작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만들었다.

기업의 감염병 방역 대응 점수 57.2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벌써 두 시즌을 잃어버렸지만, 기업의 감염병 대응전략엔 별 진전이 없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감염병의 상시화가 예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경제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이전 기업도 감염병 방역 체계를 갖춰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도 감염병 예방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은 80%가 넘었다. 그러나 대담 척도에 따른 가중치분석으로 점수를 매겨보니 71점으로 스케일 상으로는 '보통', 즉 긴급한 과제라는 보지 않았으며, 실행수준은 50점대로 푹 떨어진다.

기업의 방역 체계는 단순히 발병 체크나 사무실 소독 정도에서 그쳐선 안 된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방역시스템은 전담관리조직, 계획 및 소통 체계, 일상적 관리 체계, 위기상황시 관리 시스템, 사후 관리 및 시스템 적합성 평가 등 5개 부문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5개 부문 54개 세부 항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눈에 띄는 대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응 수준에서 대기업이 약간 높기는 하지만 의미있는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강경영 조사에선 양자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난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 "감염병 팬데믹 환경이 갑자기 닥치면서 기업들

중앙SUNDAY·서울대 의대 조사 전담조직, 위기 관리 등 5개 부문 대기업이 대응 수준 약간 높은 편 방역 담당자 지정 등 수칙 잘 준수 전문가 자문 등 예방 활동은 미흡 협력·파견 업체 직원 보호도 취약

이 전반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또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는 보통 수준의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구체적 항목으로 들어가면 같은 부문에서도 특히 잘 하는 부분과 취약한 부분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행은 양호=기업별로 방역담당자를 지정하고, 임직원과 고객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한 비율은 70% 안팎으로 현재로서 가장 잘 하는 부문이다. 방역물품을 구입해 배치하고, 고객 감염 발생 시 관리 대책을 알고 있는 등 정부의 감염 예방 수칙에 대한 적용은 높은 수준에서 실행되고 있다.

◇능동적 감염예방 계획은 취약=기업의 감염 예방 계획과 활동에 전문가 자문을 구한 사례는 절반 미만이다. 감염 예방이나 의심 상황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도 41%로 낮았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에게 예방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당노·심혈관 질환 등을 앓는 고위험 임직원에게 감염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도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 이하였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형식적 방역 절차 이외에 기업마다 신경써야 할 세부적인 부문에는 손을 못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감염 발생시 발병 직원 관리 미흡=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감염 발생 비율과 건수를 조사하고,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 부문은 보통이거나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병 직원에 대한 관리는 30~40점대로 미흡했다. 전문가들은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임직원 혹은 고객과 가족의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니 이를 실행하는 기업은 다섯 기업 중 두 개 기업에도 미치지 못했다.

◇평가와 사후관리 취약=방역 체계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야 하고, 이에 따라 시스템이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 평가에 대한 의식이 낮았다. 또한 발병했던 직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협력사나 파견업체 직원에 대한 보호 방안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선희 대기자중앙콘텐츠팀

### 포스트 코로나



자료:?????

#### 기업방역 잘하고 있어요 (70% 이상 실행)

-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용품 배치
- 위기관리 지침 제공
- 직원 감염 발생시 대책 마련
- 정보제공 및 지침 준수 촉진
- 보건소와 협력
- 열감시 등 환자 감별 체계 마련
- 감염 발생시 건수와 비용 조사

#### 기업 규모별 방역시스템 실행점수

구분	총점	계획 및 소통	일상적 관리	위기 상황 관리	평가 및 사후관리
대기업	59.9	64.7	60.5	59.7	58.8
중소기업	55	58.1	53.3	56.1	55.3

#### 기업방역 잘 안하고 있어요 (50% 이하)

- 직원 감염예방 활동 인센티브
- 감염예방 전문가 상담
- 감염 직원 충격 완화 등 지원
- 감염 고객 충격완화 지원
- 협력 혹은 파견업체 직원 지원
- 감염 후 임직원 복귀 지원
- 감염 직원 후유증 관리 지원
- 감염 시스템 평가

※ 기획: 중앙SUNDAY·서울대 의대·건강100세회의  
자료: 한국리서치

## AI 자가관리 앱 등 통해 '부익진 빈익병' 격차 줄여야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도래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적 빈부격차와 함께 건강격차도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업의 감염병방역체계 조사에서 함께 조사한 포스트 코로나 전망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보는 비율이 91%에 달했다.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른 건강 격차도 심화될 것이라는 데 86%가 동의했다. 이 조사는 척도에 따른 점수가 아닌 단순 동의·비동의 답변으로만 조사했다.

그렇다면 '부익진 빈익병'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론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건강100세회의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방안은 세 가지다. 건강공동체방식, 인공지능 자가관

리 앱을 통한 수칙 제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과 모의훈련 방식이 그것이다.

건강공동체 방식은 같은 직장이라는 동질성이 있는 구성원들 중 비슷한 질병이나 건강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각 직장이 공동체를 지원하고, 전문가가 조언을 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건강습관을 가지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꾸는 데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방식이다. 자가관리 앱은 각 개인의 직장·문화·체육·교통·종교·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분류하고 개별화해 대상·장소·상황별로 위험을 경고하고 구체적인 수칙들을 제시해주는 앱이 보급되는 방식이다.

시뮬레이션 방식은 게임처럼 개인과 조직의 특징에 따른 위험요소를 고려해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가상현실에서 시뮬레이션과 반복된 모의훈련을 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노사 응답자들은 이번 조사에서는 자가관리 앱 방식에 가장 높은 지지(94%)를 보였고, 건강공동체 방식은 89%, 시뮬레이션 방식은 86%가 유용할 것으로 보았다.

건강100세회의의 전문가들은 감염예방과 건강 문제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건강에 대한 인식 전환과 습관 변화, 사회 환경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직장과 범사회적인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기사입니다>



# 815

## 한국 금융의 힘

#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은 117개국 2400만 자선 규모의 세계신협연맹의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3~9개월 55세 이상 저소득층 무주택자 무보증 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억~4억 원의 저금리 주택 대출
- 65세 이상 초·중·고·대졸 청년 취업 지원 대출
- 3~9개월 55세 이상 저소득층 무주택자 무보증 대출
- 65세 이상 초·중·고·대졸 청년 취업 지원 대출

평생 어부바 신협

평생 어부바 신협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p><b>대상자</b>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p> <p><b>대출한도</b> 최대 1,000만원 이내</p> <p><b>대출금리</b>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p>	<p><b>대출기간</b>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p> <p><b>상환방식</b>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p> <p>※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p> <p><b>필요서류</b>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p>
---	---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